

# 석유화학 원료코스트 강세 “지속”

## 원유 · 천연가스 폭등영향 막대 ... DeWitt은 프로필렌 피크기 전망

2003년 석유화학제품 가격상승의 원인이었던 원료코스트가 2004년에도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폭등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경기회복 추세로 볼 때 석유화학제품 수요 및 가격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코스트가 폭등하기 시작해 원유가격도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으며 에틸렌(Ethylene) 가격은 파운드당 31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전쟁이 조기 종결되면서 천연가스 및 원유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2003년 9-11월 계약가격 책정에 있어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들과 9월 계약가격을 0.75센트 인하하고 10월 계약연장 및 11월 1.00센트 인상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계약가격은 파운드당 27.75센트를 형성했다.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12월 계약가격을 2센트 인상 발표했으나 예상보다 이른 추위로 100만BTU당 6.75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던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7.55달러로 상승했다. 천연가스 코스트상승과 함께 원유가격이 배럴당 33달러로 폭등하자 에틸렌 수요기업들은 원료코스트 상승에 대한 전망으로 가격협상을 중단했다.

에틸렌 생산기업들은 2004년 새해가 밝기 전에 가격협상을 타결하고 2003년 결산정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가격협상을 미루었다.

그러나 2003년 말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기온이 예상보다 높고 재고가 적당히 확보된 상태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6달러 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코스트와 함께 최근 경기상승세도 에틸렌 생산기업들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2003년 3/4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8.2% 성장했으나 에틸렌 생산기업들에게는 제조업지수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Chemical Market Associates(CMAI)에 따르면, 내구재 제조업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비내구재 제조업지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에틸렌 유도제품은 모두 비내구재에 속하기 때문에 비내구재 제조업지수가 상승세를 타야 에틸렌 시장도 강세를 나타내게 된다.

미국의 2004년 에틸렌 소비는 전년대비 약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생산능력 과잉으로 소비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잉 공급량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에틸렌 크래커들은 2004년에 계속 중단상태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급밸런스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익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1/4분기 에너지 가격이 에틸렌 가격 및 수요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원료코스트 강세로 수요기업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재고소비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CMAI는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에틸렌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틸렌 수요는 고정상태를 나타내고 에너지코스트 상승과 함께 에틸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hemical Journal 2004/03/15>